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9월 24일(주일) 제1165호

“무릎 꿇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자메시지로 참가신청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열기가 뜨겁다. 현재(9월 22일 기준)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에 동참하겠다는 신청이 1,882건(홈페이지 1,544건, 문자메시지 338건)이나 된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된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도운동이다. 10월 21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메인 배너를 클릭하거나 문자메시지(1666-2549)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매주 주일에는 기도 제목이 제시된 책자를 발행한다. 그 책자를 참고해서 하루 세 번 이상(일어나자마자, 큐티시간, 식사시간, 잠자기 전, 매일 저녁 10시) 기도하면 된다.

이양자 권사(수원 온누리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나라

사랑의 마음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 <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동성혼 합법화 포함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

26일 의정부, 27일 수원, 28일 인천 ...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내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포함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수도권에서 열린다. 9월 26일 의정부(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27일 수원(경기도 문화의전당 꿈꾸는컨벤션센터), 28일 인천(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

으로 참여해서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각 권역별로 총11회 열린다. 지금까지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에서 모두 8차례 열렸고, 이번 수도권에서 3회 열린다.

지난 14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서영주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추가하고, 동성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6조에서 ‘양성’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큰 충격을 줬다. 남은 세 번의 수도권 대토론회에 교회와 성도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2017 부흥축제 ‘ReFORM’

10월 24~26일, 강사 스카이 제서니 목사

2017 부흥축제 ‘ReFORM’이 ‘나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를 주제로 막 오른다. 10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스카이 제서니 목사이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크리스챤리티 투데이’에서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리더십 저널> 편집장이다. <하나님

을 팝니다>, <With>,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도시> 등의 저서가 있다.

이번 부흥축제는 미래, 그리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과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참가신청은 다음 주일(10월 1일)부터 받는다.

/ 정현주 기자

이주민들과 함께 ‘Harvest 2017’

10월 5일부터 7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

이주민들과 추석을 함께 보내는 ‘Harvest 2017’이 막 오른다. 10월 5일부터 7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Raise up’을 주제로 진행된다. 네팔,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이주민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주비전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과 NGO 더멋진 세상이 후원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Harvest 2017에서는 세 번의 예배와 한 번의 특별강의, 패션쇼, ‘Dream Adventure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노규석 목사(M미션 본부장), 윤용국 목사(화성M센터장), 김태진 목사(미해군 벤틀라 기지 수석 군목)가 강의한다.

온누리M미션 관계자는 “집회 준

비를 도와줄 봉사자 10명이 필요하다”면서 “10월 4일에 예배 및 숙소 세팅, 행사준비 등을 도와줄 성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준비를 도와 줄 봉사자는 10월 4일 오전 9시까지 안산M센터로 오거나 사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3937-3927

후원: 온누리교회온누리미션

하나은행 573-810031-74605

/ 이소정 기자

10월 1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다음 주일(10월 1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성도들 모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주민을 배려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환경문제까지 생각하는 캠페인이다. 예수바보들이 ‘행복한 불편함’을 실천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이날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개월 이하 자녀 동반, 10세 미만 자녀가 3명인 차량, 양재는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교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는 성도들도 강남대로나 일동제약사거리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이슈진단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청소년 폭력의 요인과 대처방안

교회는 상처 싸매고 전심으로 보살펴줄 한 사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 당해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강릉, 아산, 인천 등지에서도 청소년 폭행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어떻게 하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을까. 한마음정신회복예배를 섬기고 있는 장순우 정신과 전문의가 청소년 폭력의 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윤가는 감독이 만든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 영화 주인공 선이는 초등학교생인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학용품도 마음 놓고 사지 못한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은근히 따돌림과 무시를 당한다. 대놓고 선이를 골탕 먹이고 창피를 주는 몇몇 아이들도 있다. 전학 온 지아와 잠시 친해졌지만 이내 지아도 다른 아이들처럼 선이를 멀리하고 괴롭힌다. 선이의 마음이 타들어갔다. 영화가 전개되면서 지아 역시 다른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 일로 지아 역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사이였지만 선이가 지아의 편에 서서 아이들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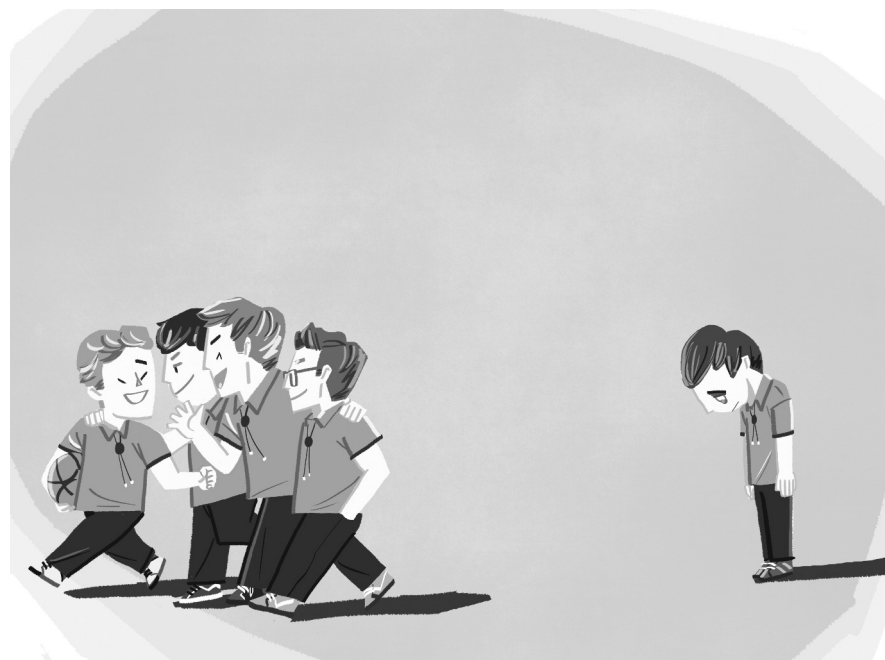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난 후에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퍼붓고 되갚아주면서 살고 있다. 왕따를 심하게 당했던 아이들이 잔인한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선이는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 선이의 공감능력은 지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 이면에는 선이를 보듬어주고 친밀한 마음을 주고받는 엄마와의 관계가 있었다.

피해자는 우울, 불안, 분노, 수치심 느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자살 위험 높아져

요즘 청소년들의 폭력이 매우 잔인해지는 경향이 있다. 2012년 관계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이 힘의 균형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증가되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외상 경험으로 인해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두뇌와 정서성,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다시 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로부터 보호하는 즉각적인 개입과 조치가 필요하다. 때로는 쉼터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피해학생들은 우울, 불안, 분노, 무력감, 수치심을 느끼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자살 위험성이 높아진다. 마치 무너져버린 건물과 같은 자아상을 지니게 되고, 깨어진 마음의 파편들이 가득해진다.

스스로와 사람들, 세상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져버린다. 외상은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몰고 온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1. 안정적인 대인관계 경험하도록 기회 제공
2. 또래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류의 장 제공
3.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사랑보내기

청소년 폭력 발생시키는 네 가지 요인

청소년 폭력이 발생하는 요인은 네 가지 영역에서 살펴봐야 한다.

첫째, 개인적인 요인이다.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다. 가해학생들은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충동적이며 좌절을 잘 견디지 못한다. 공감능력도 부족한 특성이 있다.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와 또래들로부터의 인정 욕구,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둘째, 가정적인 요인이다.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 정서적인 친밀함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인 것과 연관이 깊다. 가정에서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일수록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셋째, 학교 관련 요인이다. 좋은 성적과 경쟁 위주의 분위기에 따른 부작용, 학교폭력이 묵인되는 분위기, 교사와 학생 간의 부정적인 관계, 교사와 학생들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

도 등이 청소년 폭력의 요인이다.

넷째,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집단주의와 전체주의 문화의 영향, 대중매체와 게임을 통한 폭력물 노출,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되고 보상 받는 사회의 단면,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분위기, 경제적인 빈곤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박탈감 등도 청소년 폭력의 요인이다.

개인과 가정, 학교와 교회가 지혜 모아야

결국 청소년 폭력은 개인과 가정, 학교와 교회 등 다방면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피해아동들이 청소년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과적인 선별검사 등을 통해서 공격성이 높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쉬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관리가 요구된다. 학생 개인별 개입으로 그치지 말고 가족들을 포함시켜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

적일 수 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토론과 논의를 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학교폭력 빈도를 감소시킨 학교들이 있다.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키워주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도움이 된다. 학업 위주의 경직된 분위기 대신 다양한 예술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권장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힘과 권력, 돈과 지위로 타인을 차별하며 괴롭히는 일이 만연해있다. 이러한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부산에서 발생한 피투성이가 여중생사건의 피해학생은 장기간 결석 상태였으며 가해학생들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시위주의 학교교육 현장에서 꿈을 포기하고 가정과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향하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학교부적응자로 낙인찍히고, 각종 범죄의 유혹에 빠져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약 40%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출한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보다 6배나 높다고 한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는 사역을 통해서 기출 청소년들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보살피고, 상담하고, 교육하는 곳이 더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일대일 멘토링을 연결해주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회에 소속된 또래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주변에 절망에 빠져 살아갈 의욕과 소망을 잃고 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

“그 아이들의 깊은 상처를 싸매고 전심으로 보살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장순우 전문의
(한마음회복예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영적 지침서입니다. 세상은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욕하고, 조롱하고, 고난까지 줍니다.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환영받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대적과 핍박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베드로전서는 “거룩한 나그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구히 거하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날마다 여행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거류민 된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로 잠시 거주하는 것뿐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여행은 방랑일 뿐입니다. 나그네의 소망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에서 안식을 누리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나그네에게 있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여정

거룩한 나그네의 여정은 구원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구원은 과거 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을 구원이 있고,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원의 시제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의롭게 되어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장차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고, 날마다 받아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차 받을 구원의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앞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

다. 광야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받을 구원이 있고,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구원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성화(Sanctification)’라고 합니다.

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여정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1~2절).

거듭난 새 생명은 우리의 육체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자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생명에게 사회적인 의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생명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 생명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연령과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생명에게 어머니로부터 공급되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가장 영양이 있는 음식이 공급되듯이 영적인 새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서 119편이 가장 길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거듭난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자라고 있지 않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세상의 온갖 뉴스

는 검색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는다면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보다 성경이 가장 정확한 미래학 교과서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뉴스나 베스트셀러보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영혼 속에 있을 때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찬송가입니다. 성경이랑 불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집으로 자라는 여정

둘째 한 집으로 자라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4~5절).

갓난아이의 이미지에서 신령한 집의 이미지로 발전합니다. 거듭난 생명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잇돌이 되신 집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 집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한 생명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다 자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집의 일원으로서는 다 자란 것이 아닙니다. 건축 중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돌로 했습니다. 생명을 돌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생명체와 돌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던 성전의 목적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고전 3:16).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

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엡 2:20~22).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감으로써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처소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벽돌들이 하나씩 모여서 공간을 이루듯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돌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어느 민족에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이 함께 짓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생명들이 살아 있는 돌들이 되어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돌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만드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물이 없을 것 같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듭난 영혼들로 세워지는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여러분 자신도 산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라는 했는데 “세워진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산 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시며, 모퉁잇돌이시며,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지만 진정한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모퉁잇돌로 세우셔서 그와 연결된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 ‘집’이라고 번역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에서 볼 수 있듯이 집이라는 단어는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과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와 네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고, 슬픈 일을 겪을 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오이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기 획

기도로 나라를 구한 역사적 사실

기도는 위기를 축복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듯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간구해야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다. 밖으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안으로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논의, 청소년 폭행 사건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도 있다.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연 이 위기 앞에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정해져 있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어야 한다. 기도만큼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에스더와 사무엘,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 등의 성경 속 인물들과 영국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의 말이다. 존 낙스는 개신교도를 탄압하는 메리 여왕 앞에서 도 주눅 들지 않고 종교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메리 여왕은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을 처형한 인물이다. 존 낙스와 대립각을 세우던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기도가 그 어느 것보다 강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이 말이 사실이요 진리임을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성경에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헤쳐 나간 이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들은 모두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었다.

에스더와 사무엘 기도로 무장해서 위기를 극복하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로 민족을 구한 인물하면 빼놓지 않고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왕비 에스더다. 에스더는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할 때마다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로 자신의 민족이 모두 죽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安危만을 도모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촌 모르드개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 4:13~14)라고 한 말을 듣고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금식기도를 하게 한 이후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에 4:16)며 왕 앞으로 나아갔다. 에스더와 모르드개, 유대 사람들은 금식기도를 통해 민족의 위기를 돌파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성회도 기도로 무장해서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사건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



었다. 엘리 제사장의 무능력과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이 침공했고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계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나라가 혼란할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 그 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금식기도를 드렸다. 국경 앞까지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보고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했다. 온 백성의 회개기도가 결국 하늘 문을 열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삼상 8:10).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 기도의 강력한 힘을 목도하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는 기도 덕분에 나라가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명도 연장받기까지 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앗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다(왕하 18:5).

당시 앗수르는 강력한 나라였다.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 남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다.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왕하 19:10).

산헤립의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왕하 19:16~19).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 19:35).

히스기야의 기도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했다.

요시아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다.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앗수

르, 애굽, 바벨론 등 강대국들이 빼앗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요시아 왕은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었다(왕하 22:2).

요시아 왕이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다. 그 율법책을 해석하면서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왕인 요시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 요시아는 자신의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한 뒤 율법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읽어주고 여호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도록 언약하게 했다. 그동안 가증스럽게 섬겨온 우상과 우상의 단들은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체험한 날인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던 영적 혼란기에 종교개혁을 감행한 것이다. 나라의 위기를 종교개혁을 감행함으로써 헤쳐 나갔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도로 만든 기적이 많이 있다.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말렉 군사들이 다가왔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 전쟁터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모세가 두 팔을 뻗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의 팔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었다. 그

만드는 무기

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니스웨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 직전에 있을 때 니스웨의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하자 구원이 임한 일도 기도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사례다.

영국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기도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성경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40년 9월 15일, 이 날은 영국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다. 당시 수상이던 처칠은 책 <전쟁 회고록>에서 그 날을 가리켜 나치와의 공중전에서 특별히 승리를 거둔 ‘전쟁 절정의 날’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히틀러의 독일 폭격기들이 엄청난 기세로 영국의 바다를 건너 오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독일 폭격기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영국을 향해 날아오던 독일 폭격기들이 그냥 독일로 되돌아갔다. 당시 영국 사령관이었던 다우닝 경은 전쟁이 끝난 후 “이날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런데 이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당시 웨일즈 대학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Rees Howells)의 영향으로 처칠 수상은 두 차례에 걸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교회와 국민들에게 기도하기를 호소했다. 하월즈도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 1시간, 점심식사 후 1시간,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월즈는 독일 공군이 이유 없이 후퇴를 하던 9월 15일 바로 직전에도 기도회를 인도하며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나치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가 결코 오래 가지 못해 종말을 고할 것이며, 이 땅의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리즈 하월즈와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드렸고 이는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기도가 되었다.

평양대부흥운동 정신이 3.1운동으로

우리나라도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가 돌과구가 된 적이 있다. 일제시대와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나라 잃고 설움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기도는 희망의 단초였다.

1907년 1월 일어난 ‘평양대부흥운동’은 조선에서 일어난 회개 및 부흥운동이었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온 국민이 일제의 강압과 폭정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이 역적 회개운동이 교회와 조선인들에게 삼시간에 퍼졌다. 단순한 기도운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천적 회개운동으로 이어

졌다.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를 찾아다니거나 뒷박을 숙여 부당이득을 취한 쌀가게 주인들이 자신의 부정한 상거래를 고백하고 배상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많은 조선인들이 회개운동을 통해 기독교 진리를 터득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라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특징도 이때 갖게 되었다.

기도는 성경공부에 대한 열정, 사명감에 넘치는 구령운동, 순교를 불사하는 일사각오의 정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민족 교회로 거듭나는 도구가 되었다. 바로 이 정신이 1919년 3.1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 3.1만세운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애국애족운동이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대부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주도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덕분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지금은 아무리 살기 팍팍해도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일깨워 준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후 2:1~2).

바울은 ‘첫째로’라며 기도의 우선순위에선 무엇보다 임금들과 위정자(爲政者)를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간구(특별한 애원), 기도(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원하는 모든 행위), 도고(타인을 위해 대신하는 기도), 감사(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좋은 감점) 등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편안하게 먹고 살자’는 의미가 아니다. 소요스러움이 없는 외적 정황(고요하고)과 불안이 없는 내적인 삶의 정황(평안한)을 나타내는 말이다. 나라의 외적 고요와 내적 평안함은 우리의 기도에도 달려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앞도려 기도한 성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셨다. 기도에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공허한 울림이 절대로 아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삼상 12:23)라고 했다. 결국 그의 기도 덕분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와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삼상 7:13).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다.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고 기도한 것처럼, 코앞까지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먼저 내려놓은 사무엘과 미스바 성회처럼 기도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조형진 장로
(장로중보기도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내 죄를 씻어 의롭게 되어 심령이 거듭난은 오직 예수님의 보배 피로만 가능한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멀리하고, 허물로 주님 얼굴을 가렸던 잘못을 고백하고 철저한 회개로 돌이켜 더러워진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잘못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새롭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모두가 언약 백성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살피고 준행함으로 이웃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도구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라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요엘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을 기억합니다. 작금 나라 안팎의 위중함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시의적절한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로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온갖 난맥상이 고침 받아 이 땅의 황무함이 기경되어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있습니다.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1884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열약하고 척박한 이 땅에 130여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해 무지몽매한 영혼구원을 위해 예배당과 학교를 세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이제 세계가 놀라는 10대 경제대국으로 경제적 부흥과 풍요를 허락하셔서 많은 민족의 선망의 대상으로 선교사 파송 2위로 주님 사역을 감당케 됨이 바로 이 땅에 몸 바친 헌신과 순교자들의 예언의 성취이며 주님의 은총임을 깊이 감사하나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직한 리더로 정의와 원칙을 통해 세대 간 갈등과 지역 간 분열을 넘어 소통과 이해로 대립이 아닌 양보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정착되게 하시고 대내외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가는 한국경제를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발목잡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 재도약의 길을 더 주옵소서. 과도한 경쟁과 성공제일주의에서 벗어나 바른 물질관을 심어 세계복음화의 동력이 되어 열방에 선교한국을 펼쳐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욱 포악하고 예측 불가한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6차 핵실험과 ICBM 미사일로 정권유지와 적화통일 확적과 계략으로 끔찍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긴장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방패시며 피난처 되셔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으로 돌이켜 투항함으로 살아나도록 노헤미야와 같이 간절히 믿음의 중보로 무릎 꿇어 오늘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 되어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이 구원 받아 주의 영광이 가득한 통일한국 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3만여 명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품어 잘 정착토록 함께 돕는 이웃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평택M센터의 사명 ...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는 도야 자매.

‘평택M센터’가 개관했다.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전이자 꿈이다. 지금은 몽골에서 온 이주민 30여 명이 평택M센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집보다 더 좋다”며 만족감을 내비치고 있다. 러시아어에 배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택M센터에서 예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을 만났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경기도 평택은 안산, 남양주, 김포와 더불어 이주민들이 많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외국인 등록인구가 2만 명이 넘는다. 평택 인근 도시까지 합치면 이주민 인구가 6만 명을 훌쩍 넘는 다문화 도시다. 평택항과 평택 미군기지가 있어 더 많은 이주민들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이곳에 자리 잡은 평택M센터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주민들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쉽터가 되어 주고 있다.

평택M센터는 평택역 뒤편(원평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았다. 자모실, 강의실, 목양실, 예배실을 갖추고 있다. 예배실은 한꺼번에 성도 50여 명이 예배드릴 수 있고, 자모실은 어린이 네댓 명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다. 강의실은 성도 20여 명이 둘러앉을 수 있고, 목양실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상담하는 곳이다. 평택M센터는 몽골, 베트남, 러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전이자 꿈이다. 지금은 몽골인 30여 명이 예배드리고 있고, 러시아에서 온 한 가정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

평택M센터는 이광수, 더기 선교사 부부가 섬긴다. 그들은 평택M센터가 개관 전에는 평택 온누리교회 몽골어예배를 섬겼다. 더기 선교사가 몽골인이어서 누구보다 이주민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주민들의 못 말리는 ‘평택M센터’ 사랑

지난 주일(17일) 평택M센터를 찾았다. 예배가 시작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성도들이 일찌감치 와 있었다. 이광수 선교사는 몽골어예배

를 드리는 성도들의 평택M센터 사랑이 남다르다고 했다.

“평택M센터가 오픈을 준비할 때부터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어요. 자기들만의 예배당이 생기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일하느라고 피곤할 텐데 평일에도 퇴근하자마자 와서 교제하고 있어요. 여기가 자기 집보다 편하대요. 어제도 밤 열한시가 넘어서 갔는데요?”

몽골에서 온 이주민들의 평택M센터 사랑은 새벽부터 시작된다. 매일 새벽 다 같이 모여서 큐티나눔을 하고 있다. 혹여나 새벽 큐티나눔에 늦거나 오지 못할까봐 평택M센터에서 잠을 청하는 성도도 있다. 그 중에서도 어트후 형제, 도야, 부제, 오양가 자매가 열심이다. 도야 자매가 평택M센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어요.”

어트후 형제, 도야, 부제, 오양가 자매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 4인방이다. 도야 자매가 지난해 1년 과정의 하베스트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모습에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어트후 형제, 부제, 오양가 자매까지 신학교에 진학했다. 도야 자매의 신학교 진학이 다른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도야 자매가 몽골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던 때문이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몽골에서 온 도야 자매의 집안은 대대로 유명한 무당가문이었다. 몽골 ‘바잉헝거르’라는



▲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성도들.

지역에서 도야 자매 집안의 무당들이 영험하기로 손꼽힐 정도였다. 보통 한 대(代)에서 무당이 한 명씩 있었는데 도야 자매가 차기 무당으로 뽑혔었다.

“무당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늘 저보고 무당이 되라고 하셨어요.” 무당이 되지 않으면 좋았으면만 애석하게도 도야 자매는 무당 일에 재능까지 있었다. 그녀에게는 무당이 하는 말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무당의 말을 통역하는 역할을 ‘두세’라고 한다. 기독교로 치면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이고, 한국 무당으로 치자면 무당을 도우면서 일을 배우는 새끼무당인 셈이다. 그녀는 2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두세 일을 했는데 하는 통역마다 족족 맞았다. 도야 자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의 영혼이 그녀에게 빙의해서 교도소에 있는 오빠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도야 자매는 무당이 불러줄 때마다 찾아가 일을 도왔다. 그러다 2010년 먼저 온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됐다. 한국에 오면서 도야 자매는 섬기던 무당에게 돈을 주면서 평안을 부탁했다. 짐을 쌀 때도 빼놓지 않고 부적을 챙겼다.

“그때 모시던 무당에게 전화를 해서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집을 떠날 때는 뭉치를 뿌리고, 비행기에 탈 때는 이렇게 하라며 행동거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는 무당만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야 자매는 남편과 함께 평택 인근에서 살았다. 무당이 준 물건은 보물단지처럼 모셔뒀다. 몽골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남편이 여자문제로 말썽을 부렸다.

“그때마다 무당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무당이 돈을 얼마 보내주면 해결해주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돈을 보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들딸과 생이별하고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마음속에 평안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때 문득 교회가 생각났다.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몽골 친구들이 몇 번이고 교회에 가자고 했거든요. 교회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의 손에 이끌려 찾아가던 곳이 평택 온누리교회 몽골어예배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밝았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똑같이 힘든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하고 평안했다. 그 비결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계속 예배에 나왔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그렇게 찾던 평안이 돈과 무당에게는 없었어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께만 있더라고요.”

도야 자매는 2013년 8월, 온누리M미션 연합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 그동안 보물단지처럼 모셔뒀던 무당이 준 물건들은 불태웠다. 그리고 2016년 신학교에 입학했다. 예수 만나고 생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학했다.

“무당 명문가였던 우리 집안이 이제는 기독교 명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 예수님 잘 전하려면 제가 먼저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했어요.”

몽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야 자매의 아들 딸도 교회에 다니고 세례까지 받았다. 도야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트후 형제, 부제, 오양가 자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어트후 형제, 부제, 오양가 자매에게 남은 한 국생활의 목표는 더 이상 돈이 아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목표이다. 성경을 잘 배우고 몽골에 가면 그만큼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유학한 오양가 자매는 러시아어예배 개척에도 앞장서고 있다.

봉사자 모집

1. 한국어 자격증반(TOPIK)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일요일: 오후 5시 30분~7시

2. 탁구, 기타, 요리교실(봉사자 시간에 맞게 조정)
문의: 010-6343-7588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하여

CMN 마노아팀, 파주시 순복음엘림소망교회를 가다

의료선교팀 CMN 소속 마노아팀이 이번에는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위치한 순복음엘림소망교회를 찾아갔다. 순복음엘림소망교회 성도 중 90%가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이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른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파도 아플 수가 없다. 그들에게 CMN 마노아팀은 희망이자 생명일 수밖에 없었다. CMN 마노아팀은 안타까운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고 돌보고자 구슬땀 흘렸다. 그 현장에 동행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파주까지 한 시간을 달리자 초록색 들이 펼쳐졌다. 넓은 들을 지나 골목길로 들어섰더니 순복음엘림소망교회의 십자가가 보였다. CMN마노아팀은 각종 의료 기구가 담긴 트렁크와 박스를 한가득 꺼내 순복음엘림소망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바쁜 와중에도 빠진 의약품은 없는지,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30분쯤 지나자 순복음엘림소망교회 예배당에 작은 병원이 세워졌다. 접수,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영상의학과(초음파), 심전도(KEG), 주사실, 약국이 마련됐다. 그 시각 환자들이 줄을 섰다. 손등에 번호표를 붙이고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서 간절함이 묻어났다.

순복음엘림소망교회는 이복자 전도사(66세)가 개척했다. 12년째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순복음엘림소망교회 성도 90%가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이다.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이복자 전도사는 엄마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복자 전도사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해 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발 벗고 나서기 때문이다. 몸이 아프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들의 편이 되어준다. 끼니를 챙기지 못하면 손수 밥을 해 먹인다. 이복자 전도사의 진심이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었다. 이복자 전도사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이 소문이 나서 성도가 100명을 훌쩍 넘었다.

“그들을 섬기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전에는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요즘은 행복해서 운다는 이복자 전도사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도 느껴졌다.

CMN 마노아팀은 지난해부터 순복음엘림소망교회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시작은 임광순 장로(찬양공동체)의 제안이었다. 지난해 임광순 장로가 이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지역 이주민 현황을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순복음엘림소망교회를 알게 됐다. 임 장로가 직접 와본 순복음엘림소망교회는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망가지고 있었고, 충분한 영양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난민 신청자들에게 의료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제야 깨닫게 됐다. 그 순간 CMN 마



▲ 파주시 순복음엘림소망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땅을 찾고있다.



▲ CMN 마노아팀이 아프리카 이주민들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있다.

노아팀이 떠올랐다. CMN 마노아팀 담당 남상옥 장로에게 의료봉사를 부탁했고 그 일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일 년에 두 번씩 순복음엘림소망교회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봉사였다.

아파도 아플 수 없는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

“안녕하세요.”

접수팀 강진일 성도와 박덕순 성도가 밝게 웃으면서 환자들을 맞이했다.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고, 증상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차트를 작성했다. 접수가 끝난 환자들은 진료과로 이동해서 진찰을 받았다.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이유는 이주민들의 증상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여 치료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병원 한 번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 이복자 전도사는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대부분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 중에서도 3D업종인 쓰레기분리 공장 에서 일하고 있어요. 고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일이 바쁘고 돈이 없어서 치료 한 번 받는 것도 어려워요.”

이 전도사의 말대로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은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요통,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초기에 치료했으면 별거 아닌 질병을 참고 또 참으면서 키워버렸다.

진료를 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난민 신청자들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난민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7,542명이다. 2014년(2,896명)과 비교해서 2.5배 이상 증가했다. 그들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가족들의 생계 때문이다.

이날 진료실에서 만난 모세 형제도 그렇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올해로 한국에 온지 딱 10년 됐다. 그가 한국에서 한 첫 번째 일은 섬유무역 사업이었다. 한국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나이지리아로 보내는 일이었다. 그 일에 적응도 하기 전에 사업이 무너졌다. 컨테이너에 있던 제품에 물이 쏟아지면서 운송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 모세 형제는 먹고살기 위해서 쓰레기분리 공장에 들어갔다. 일은 혹독했다. 하루 종일 엄청난 쓰레기를 분리하고 처리해야 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질병이 찾아왔다. 지난해 겨울 소변을 보지 못하는 급성요폐에 걸렸다. 그런데도 일을 그만둘 수 없어서 오줌팩을 차고 일을 했다. 이복자 전도사의 도움으로 적십자병원에서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질병은 늘 그를 따라다녔다. 이날 CMN 마노아팀이 모세 형제에게 약봉지를 건네자 환하게 웃었다. 약봉지에는 복용법과 병에 관한 설명이 적힌 쪽지가 붙어있었다. 진료를 받고 나온 모세 형제가 감사인사를 했다.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쪽지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CMN 마노아팀이 진료를 안 해주셨다면 제가 고향

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날 CMN 마노아팀은 그들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준 것이 아니다. 그들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줬다. 이복자 전도사가 CMN 마노아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CMN 마노아팀의 섬김과 수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CMN 마노아팀의 섬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후원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순복음엘림소망교회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다. 원래는 파주시 용미리에 있었는데 7년 전 이복자 전도사가 중국에 잠깐 다녀온 사이 집주인이 상의도 없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새로운 예배처소를 찾다가 발견한 곳이 지금의 장소다. 그런데 또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다. 이 지역에 재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순복음엘림소망교회 옆집은 이미 허물어졌다. 순복음엘림소망교회는 지금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할 땅도 자금도 없다.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를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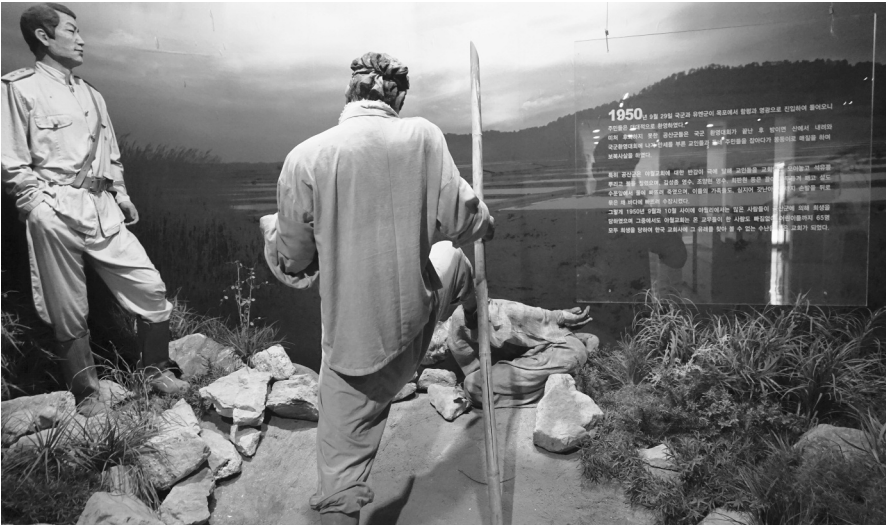
CMN 마노아팀에서 동역할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의사도 찾고 있다.

CMN 마노아 이대현 팀장(010-3387-7764)
윤희성 총무(010-4523-8146)
후원: 순복음엘림소망교회
(농협 355-0028-0765-13)

탐방 꼭 한 번 가봐야 할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전남 영광을 가다



한국에도 꼭 한 번 가봐야 할 기독교 유적지가 많다. 가족, 공동체, 순 단위로 방문 하면 좋은 명소를 소개한다.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전라남도 영광의 '야월교회'와 '염산교회'다. 6.25 한국전쟁 당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전라남도 영광에는 굴비만큼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순교지'다. 전남 영광 야월교회와 염산교회에 가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광군에서 총 280여 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 야월교회, 염산교회, 백수교회, 영광대교회, 모량교회에서 기독교인 194명이 공산군의 총칼에 순교했다. 기독교인들이 공산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월교회는 전교인 65명, 염산교회는 성도 77명이 순교했다. 목숨을 내놓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결했는지 모른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믿음이 밀알되어 전남 영광에는 129개 교회가 세워졌다.

전교인이 순교당한 야월교회

야월도는 외딴 섬이다. 지금은 이렇다 할 특산품이 없지만 예전에는 백합조개가 잘 자라서 외딴 섬인데도 풍요로웠다고 한다. 야월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900년대 초반이다. 미국 남장로교 유진벨 선교사가 전남 영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1908년 이곳에 네 번째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가 바로 야월교회다. 처음에는 주민 한두 명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1950년대에는 7가정에서 65명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성도 수가 제법 많은 교회였다.

야월교회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전교인이 공산군의 총칼에 순교하고, 교회가 불에 타 성도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웃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야월교회를 다시 세웠다. 지금 야월교회에는 성도 15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순교자기념관을 만들어 후세에 순결한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

야월교회가 전교인이 순교할 만큼 공산군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있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3일전 북한에서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무장공비가 야월도에 잠입했다. 그런데 야월교회 한 집사의 신고로 무장공비들이 붙잡혔다. 그러고 나서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때 그 일을 패싹하게 여긴 공산군들이 복수를 한 것이다.

공산군들의 기독교인 박해는 대체로 1950년 9월 28일 즈음 벌어졌다. 당시 상황은 연합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북진하면서 공산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전단을 살포할 때였다. 공산군들은 후퇴하거나 오지로 숨으면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는데 이때 기독교인 박해도 절정에 이르렀다. 야월교회 순교자기념관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 최종환 장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때 제가 9살이었는데 밤마다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공산군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였어요. 저희 앞집도 온 가족이 잡혀갔어요. 담장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보니 저만한 아이가 울면서 끌려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어요.”

당시 공산군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색출했다고 했다. 얼마나 교묘했는지 알 수 있는 증언을 들었다.

“교회 마당에 큰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울



▲ 수장당한 염산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돌을 이고 설도항에 갈 수 있다(염산교회).
▲ 야월교회 성도들의 순교를 재현했다(야월교회 순교자기념관).

리면 다들 교회로 모였어요. 어느 날 교회종이 울려서 ‘공산군에게 해방이 됐다’고 생각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알고 보니 공산군들이 그 종을 친 거였어요. 그렇게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찬송을 부르라며 매질을 당해서 죽고, 돌에 맞아서 죽고, 총칼에 찔려서 죽고, 흉터미에 깔려서 죽었다.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7가정 65명의 성도들이 순교했다. 공산군들이 얼마나 잔혹했으면 야월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렇게 야월도에 전해진 복음이 사그라지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 그들의 순교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야월교회 전교인이 죽임을 당한 해가 바뀌기도 전에 야월도에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염산교회에서 전도단이 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야월도에 복음의 씨앗이 다시 떨어졌고 그 씨앗들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저도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처음 갔어요. 그 무서웠던 공산군에 대한 기억을 잊을 정도로 교회가 따뜻했어요. 성도들 목숨도 안 구해준 예수가 무슨 신이냐며 나무라던 어른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야월도에 사는 주민 150명이 교회를 다녀요.”

77인이 순교한 염산교회

야월교회에서 5분 남짓한 거리에 염산교회가 있다. 염산교회 성도들도 공산군에 의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다. 성도 77명이 순교했다. 살아남은 성도들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후세에 전수하고 있다.

공산군들이 한국전쟁 당시 염산교회 성도들을 죽인 방법은 너무나 잔혹했다. 목에 돌을 매단 채로 염산교회 앞바다에 던져 수장을 시켰다.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안종렬 목사(당시 전도사)의 기록에 의하면 순교자들의 팔 다리가 잘려나가고, 갯벌에 처

박히고, 바닷물에 몸이 붙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창고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43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저 목 놓아 울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

염산교회 성도들이 공산군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공산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몇 번 겁을 주고 매질을 하면 그들 편을 들었는데 유독 염산교회 성도들은 공산군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한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염산교회는 손양원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면서 순교의 의미를 새겼고, 공산당이 판을 칠 때도 염산교회 김방호 담임목사가 성도의 집에서 비밀예배를 드리면서 공산당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했다고 한다. 상황이 너무 나빠지자 성도들이 김방호 목사에게 피난을 권유했지만 김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김방호 목사는 미국의 스파이라는 죄명으로 여덟 식구 모두가 몽둥이에 맞아 같은 날 순교했다.

염산교회 노병재 집사 일가는 3형제를 포함해서 22명이 순교했다. 공산군이 그를 잡으려 갔을 때 노 집사는 “기도하고 나갈 테니 기다려 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 일가족이 새끼줄에 묶여 설도항 수문에 던져졌을 때 노 집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며 찬양했다고 한다. 공산군의 눈을 피해 태극기를 그리다가 화형당한 기삼도 청년 등 77인의 순교자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보석 같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

전라남도 영광에서 만난 신앙의 선배들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염산교회에 가면 공산군들이 성도들을 수장시킨 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염산교회에서 설도항 수문까지 그 돌을 이고 걷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그 돌을 가슴에 안고 순교자들이 걸었던

성경에 나오는 나라이야기-페르시아

박시마 전도사
(페르시아어예배 담당)

구약성경에 나오는 ‘바사제국’은 고대 페르시아(Persia) 제국을 의미한다. 그 나라가 바로 오늘날 ‘이란’이다. 잘 알려져 있는 구약성경의 인물들이 이란에 잠들어 있다. 다니엘, 에스더 왕비, 모르드개, 하박국이 그들이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했다.

페르시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창세기다. 노아의 장남 셈이 낳은 첫째 아들 엘람(창 10:22)이 오늘날 이란의 선조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아들들(셈, 함, 야벳)과 그 후손들이 각각 흩어져 나라를 이루었다. 그때 셈의 장자였던 엘람의 후손들이 아라랏 산 남동부지역으로 이동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이란이다. 그들이 처음 정착한 곳은 이란 남서부 고원 지대인 쿠지스탄 평원과 자그로스 산맥 근처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등장한다. 성경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나안을 침략한 동맹군(고임 왕, 시날 왕, 엘라살 왕)의 지도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엘람의 후손들이 정치적 결사체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창 14:1~17). 또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유대인들 일부가 엘람 땅으로 이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사 11:11). 이때 유대인들은 엘람 뿐 아니라 앗수르, 애굽, 이디오피아, 바벨론, 히맛, 지중해 여러 섬과 해안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 이후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엘람 땅으로 계속 이



이란에 있는 선지자 하박국 무덤.

주했다. 신약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도 행전 2장 9절에 오순절 날 페르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엘람인(Elamites)들이 함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노아의 후손이 또 있다. 야벳의 셋째 아들 마대의 후손 메대족이다. 메대족은 현재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을 중심으로 살았던 쿠르드족의 조상이다. 메대족은 바벨론과 연합해서 앗수르를 멸망시켰다. 메대족과 엘람족이 병합해서 이룬 나라가 바로 바사제국이다. 바사제국을 이룬 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과 고레스 왕

‘고레스’라는 이름에는 ‘태양’ 혹은 ‘보좌’라는 뜻이 있다. 그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창설자요, 페르시아의 황제였다. 그를 고레스 2세 또는 고레스 대왕으로 불렀다. 따라서 할아버지 고레스 1세(BC 668)나 젊은 고레스(BC 431~401)와는 구분해야 한다.

페르시아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위치한 수사 혹은 수산까지 진출해서 그곳을 수도로 삼았다. 수산은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살았던 지역이다. 지금까지도 수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부림절’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부림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페르시아인 하만을 이기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산궁은 이란의 남부 아흐버즈에서 약 100km북쪽에 위치한 슈쉬(Shush) 지역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수산궁을 볼 수는 없다. BC 435년에 수산궁이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수산궁은 고레스 대왕과 다리오 1세(BC 522~486), 아하수메로, 아닥사스다 1세 등이 유대 민족과 함께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이란에는 수산(현 슈쉬)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들이 연회를 즐겼던 페르세폴리스 궁전, 다니엘 선지자의 무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무덤, 선지자 하박국 무덤 등 많은 유적이 있다.

고레스 왕은 서쪽 리디아(Lydia) 왕국과 동쪽 파르티아(Parthia)까지 합병하면서 세력을 더욱 확장해 나갔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넘어 인도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하나님께 불경한 일을 저지른 바벨론 왕 벨사살을 제거하고 바벨론을 점령한 사람도 고레스 왕이다(단 5:25~31).

두란노 신간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꿀짜박사》
조명환 저 | 두란노 | 11,000원

우연히 선포한 교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성적이 낮아 대학에서 쫓겨나는 등 여러 차례 고비를 만났다.

그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지금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아시아-태평양 에이즈학회장이자 건국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이 놀라운 과정과 은혜가 담겨 있는 책을 이 시대 청년들에게 권한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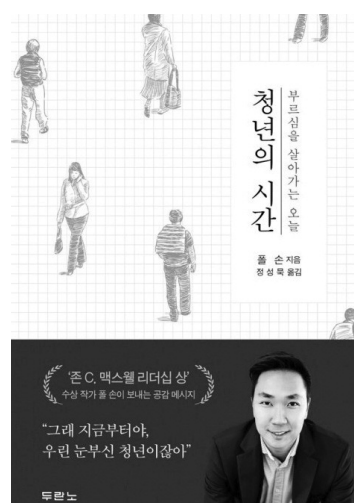
에이즈(AIDS)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조명환 교수를 만든 말이다. 조명환 교수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 뒤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실향민이었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 에드나 넬슨이라는 미국인이었다. 그녀는 조명환 교수의 아기 때부터 45년 동안 매달 15달러와 편지를 보내줬다. 그녀는 항상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문장으로 편지를 끝맺었다.

조명환 교수는 “자신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실력이 모자라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지인의 권유로 공과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다

를 멸망시켰다. 성경에서 메대족이 바사와 같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예를 들어 메대 바사, 바사 메대).

오늘날 이란인들에게 이란(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왕이 있다. 고레스 대왕(BC 559~BC 530)이다. 고레스 왕은 아버지 캄비세스 1세의 뒤를 이어 바사의 통치자가 되었다. 고레스 통치 9년째 되던 해 메대왕국을 완전히 병합하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다(단 5:28). 바로 이때 진정한 페르시아 왕국이 탄생했다.

성공이 아니라 소명이다



《청년의 시간》
폴 손 저 | 두란노 | 12,000원

해서 성공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바로 직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찾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간구했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술되어 있다. 이 시대 방향하고 소명을 찾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소명에 대한 충성이다.”

‘올로(YOLO)’, ‘N포 세대’, ‘88만원 세대’

이 시대 청년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이 시대 청년들이 더 이상 꿈, 비전, 미래, 희망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헬조선’이라고 나라를 원망하며, 돈, 명성, 지위, 학위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소유와 무소유의 잣대로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

그런데 정말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조건들이 성공의 기준일까. 《청년의 시간》의 저자 폴 손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짓말들을 찾아내고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상적인 성공에서의 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 책의 저자인 폴 손도 소명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산 적이 있었다. 20대에는 스펙 쌓기에 열을 올렸고,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에 입사

해서 성공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바로 직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찾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간구했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술되어 있다. 이 시대 방향하고 소명을 찾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소명에 대한 충성이다.”



지난 9월 9일 여호수아 공동체가 천사의 집에서 '한가위ODO'를 진행했다.

이웃들과 함께 보내는 풍성한 한가위

대청, 탈북민, 장애인 등 찾아가는 'ODO' 한창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벌써부터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있다.

대학청년부가 지난 9월 9일 여호수아공동체 천사의 집, W공동체 애란원과 진중교회를 찾아가 섬긴 것을 시작으로 탈북민, 위기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을 찾아가는 '한가위ODO(One Day Outreach)'를 시작했다. 한가위ODO는 10월 27~28일 여호수아공동체 동두천 치킨캠

프까지 이어진다.

이번 한가위ODO에서는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334명이 탈북민, 위기청소년, 장애인, 위탁 아동, 이주민, 쪽방촌 어르신 등을 섬기고 있는 13개 기관과 교회를 찾아가 민속대잔

치, 가을운동회, 어르신 삼계탕 대접, 어린이 돌보기 등을 섬길 예정이다. 한가위ODO는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대학청년부의 대표적인 전도행사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공동체	기관 및 교회	일시	사역내용
여호수아	남대문57가마을	10월 14일	마을 공동체 MT
	동두천 치킨캠프	10월 27~28일	청소년예배, 간증 및 나눔
요셉	구세군 후생원	9월 24일	어린이예배
	한터	10월 6일	한터예배 및 교제
SNS	석계은혜교회	9월 30일	탈북어르신 블레싱
	홍제동 개미마을	9월 30일	마을 주민 블레싱
W	인천동산교회	10월 21일	소풍, 레크레이션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4천1백 명 동참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후원신청 가능



한 성도가 CGNTV 직원에게 정기후원 약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주일(17일)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를 주제로 진행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 온누리교회 성도 4천1백 명이 동참해 신규 및 증액후원을 약속했다. 신규후원자가 3천여 명에 달해 CGNTV의 정기후원자는 3만1천 명을 넘어섰다.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통해 CGNTV의 연간 후원금이 7억5천만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명희 성도(성북공동체)는 "CGNTV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CGNTV 후

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고, CGNTV 임직원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귀하게 모인 후원금은 국내외 크리스천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다음 세대와 비기독인들을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CGNTV 정기후원 약정은 전화나 CGNTV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홈페이지: give.cgntv.net
전화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승합차가 꼭 필요합니다"

남양주 온누리미션예배에서 인도예배와 네팔예배 성도들을 교회로 픽업하기 위한 승합차를 구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 온누리미션에는 인도예배 20여 명, 네팔예배 40여 명이 출석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어 주일예배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허원희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인도와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이 교회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도 승합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031-565-9686-8

부천, '예스비전통독' 개강

부천 온누리교회가 '예스비전통독' 과정을 개강했다.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부천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김정순 목사가 한다. 예스비전통독은 삶에서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가 대상이다.

문의: 010-3387-2941

미래전략회의 'Beyond the 25th year!'

TIM 출범 25주년 기념하고, 선교전략 논의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출범 25주년을 맞아 'Beyond the 25th year!'를 주제로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한다.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두란노해외선교회 출범 25주년 감사예배는 9월 28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린다.

이번 미래전략회의는 지난 25년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장

(場)이다. 회의에는 선교현장에서 코디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와 2005년 9월 이전 파송된 선교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미래전략회의에서는 '전략팀 선교를 위한 전략코디의 역할', '두란노해외선교회의 교회 개척 및 방향', '전략팀 선교 활성화 및 교회개척', '에즈라 플랜&멤버케어', '매뉴얼, 은퇴, TFI' 등을 주제로 회의와 선교권역별 모임이 진행된다.

문의: 02-794-1603

'일대일데이' 기념행사 풍성

일대일데이였던 지난 주일(17일) 각 캠퍼스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일대일사역자가 추천한 'BEST 양육자', 양재 온누리교회는 일대일 제자양육 공로자, 부천 온누리교회는 우수양육자를 시상했다. 서빙고와 수원에서는 암송대회가 열렸고, 양재, 부천, 강동, 양지 온누리교회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와 동반자를 위한 포토존이 설치됐다.

일대일 제자양육 BEST 양육자상을 받은 오기호 성도(서빙고공동체)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오수경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 이소정 기자

인천 열방기도회 연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내일(25일) 열방기도회를 연다. 프리스페이스 3층에서 오후 7시 40분에 진행된다.

이번 열리는 열방기도회에서는 시급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제목 등을 꺼내놓고 부르짖을 예정

이다. 인천 열방기도회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열린다.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싶은 성도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32-4379-686

9월 세례자

■서빙고

김민균 880919
김현정 771112
김혜원 820204
박이슬 940317
손재영 700421
안광호 731207
왕지영 960620
유영삼 720817
이광미 611108
이오복 760215
이정미 751113
이한유 540225
정윤주 720214
차영자 540821
추세린 020315

■유아

권이는 150825
권용규 천기운
김리아 160728
김찬일 정수정
김수아 151107
김건욱 반주연
김예빛 151106
김창희 임경화
김예슬 160516

■양재

김나래 821212
김은지 900828
김태국 760405
선영근 800523
송미선 801105
이수연 790709
장성아 840426

■유아

강지수 151012
강민성 이희정
김소은 151006
김재환 조은선
김은찬 150822
김광현 장성아
김준희 161226
김수환 이승주
김하준 150929
김의겸 전은미
이로규 160114
이정표 안혜민
이진형 151222
이오훈 이고은
전해민 160222
전환주 오승현
최유찬 151118

■대학청년부

최진우 안여진
최주완 170315
최재훈 채주희

■요셉

이예진 941205
김서영 881029

■여호수아

김민경 880602
김보람 881015
남민정 870416
박미란 891023
오유진 930920
정여진 820907

■J4U

Lee Grace Jooyun
830523

박유리 820802
조수연 810724

■Pole2

석새론 970901

■입교

김수현 960921

제1165호 | 2017년 9월 24일(주일)

■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 수료 간증



/ 최효광 성도(요셉공동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새가족반에 있을 때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신청을 결심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 16주라는 긴 시간을 할애 해가며 성경공부를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모태신앙이었기에 웬만한 성경 내용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세상의 가치를 좇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다. 모든 일의 주인이 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 광야 같은 고통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중심에 일대일 제자양육이 있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내 안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내게 깊이 다가왔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동안 내 안에 있던 교만이 순종으로 변화되었다. 나를 양육해주셨던 장로님과 나눔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성경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고 반성했다. 무엇보다 성경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

지도 배웠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원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내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었다. 나약한 죄인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꼈다. 세상의 유익과 성공만 좇던 내가 이제는 새벽기도를 나가고 있다. 또한 요셉공동체 홀리스타에서 스태프와 테이블 리더로 섬기고 있고, 유년부 교사로도 섬기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불안했던 나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말이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인 된 삶을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 내가 섬기는 사역



/ 채옥희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여기는 ‘두루두루 맘 카페’

내가 섬기고 있는 ‘두루두루 맘 카페’는 부천의 중심지에서 한 블록 너머에 공장지대와 인접해 있다. 여기에 오는 버스는 딱 한 대이고 배차시간은 30분이다. 재개발 무산으로 소수에 휘말린 허름한 동네이다. 공장지대이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이 많다. 이곳에 오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가정이거나 한 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이다.

두루두루 맘 카페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함께 음료와 간식을 나누고 저녁식사를 한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외국인, 어르신, 장애인들까지 매일 40~50명 정도가 함께 식사한다. 카페는 지지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기업들과 개인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학생 이상 아이들은 카페가 닫혀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에 가지 않을 때가 많다. 부모의 돌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대화의 반 이상이 욕설이고 언제든 상대방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다. 손에는 게임을 위한 휴대폰이 늘 들려있다. 공부와 담 쌓고 PC방을 전전하기도 한다. 두루두루 맘 카페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배우는 시간을 놓친 아이들에게 이웃이자 가족이 되

어주고 있다.

뉴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곳에서도 매일 벌어지고 있다. 본인 부주의로 휴대폰이 깨졌는데 카페에서 깨졌다면 막무가내로 따지는 부모, 도움만 받고 모른 채하는 외국인,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자 아이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다고 싫은 소리를 쏟아내는 의사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카페의 몫이다. 이곳 주민들은 두루두루 맘 카페가 기관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종교를 강요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밥을 먹였더니 학교, 기관들과 연합하여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매순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아직도 머릿속이 분주하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게 카페에 오는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위안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부족하지만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후원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팀과 금흥사역팀에게 감사하다.

■ 화성M센터 기타스쿨을 마치고



/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그들을 위하여

2017년 3월 경기도 화성시 발안지역에 화성M센터가 오픈했다. 화성M센터는 찾아오는 불교도, 힌두교, 무슬림 근로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던 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섬길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들을 위한 기타교실을 열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들이 모국어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타스쿨이 열린다는 소식을 알리고 봉사자와 장소를 마련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형제들을 잘 아는 분들이 그들에게 기타스쿨을 소개해줘서 형제 2명과 자매 1명이 참여하게 됐다. 강사는 탁구선교회(APM, OPM) 회원인 이현규 집사님(은혜샘물교회)과 유성재 집사님(온누리교회)이었다. 두 분은 2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형제자매들에게 기타를 가르쳤다. 장소는 수원 온누리교회 다문화사역팀에서 제공해줬다. 수원

온누리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매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형제자매들을 격려해주셨고 따뜻한 밥도 사주셨다.

기타스쿨에 참여한 후산 형제는 오래전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어 했다. 그런데 기타도,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서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기타스쿨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기타를 선물 받았고, 연주하는 법도 금방 늘었다. 강의를 맡으신 두 집사님은 평일에도 휴대폰으로 기타 코드를 알려주고, 동영상 찾아서 보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봉사자 모두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른다. 오죽하면 기타스쿨에 참가한 형제는 이런 말을 했다.

“기타까지 준비해 주고 간식까지 마련해주는 기타스쿨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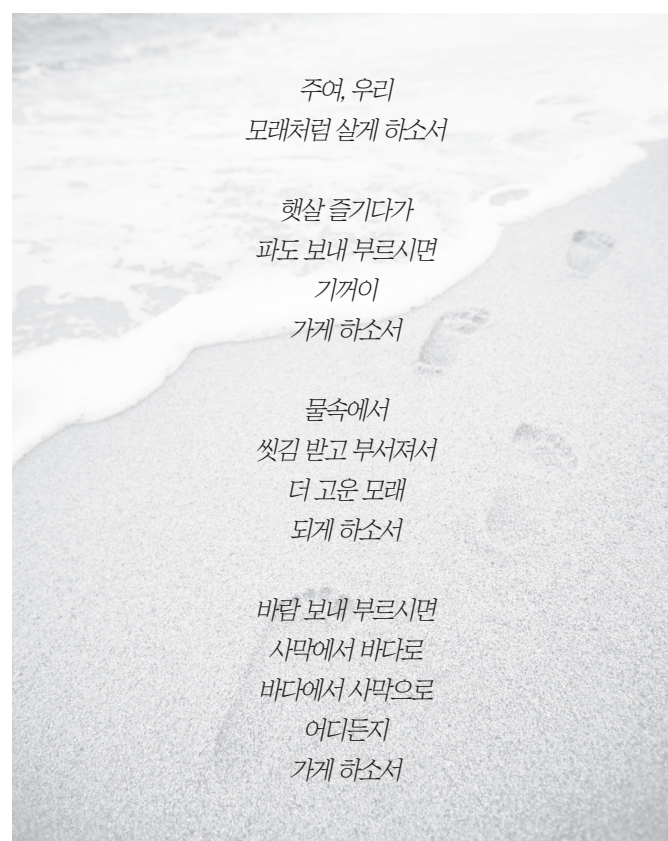
기타스쿨을 수료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모국어로 찬양을 두 곡이나 연주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형제자매들의 기타연주 실력이 더 성장하고, 그들이 고국에 예배를 개척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 신앙시



/ 최성원 성도(이촌공동체, 주차사역팀)

모래처럼



복지칼럼

그들의 아침은



김정진 원장
(변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변동코이노니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손길이 모이는 공동체다.

먼저 봉제작업장의 아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일반 봉제공장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가위, 스티다리미 소리만 있지만 이곳에는 기도과 찬양소리가 가득하다.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이들에게 변동코이노니아에서 보내는 하루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행복함이 가득하다. 여러 조각으로 나뉜 천들이 봉제작업장 근로자들의 바느질로 이어져 하나의 옷이 되는 것처럼 서로가 직장동료를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간다. 같은 모양의 옷이라고 할지라도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렇기에 모든 과정에 집중해야 하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그렇게 힘들게 작업한 옷일수록 입는 사람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봉제작업장 근로자들의 소망이다.

이곳에는 10대부터 옷을 만들기 시작해서 40년 넘게 옷을 만들고 있는 집사님이 계시다. 변 집사님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봉제일이 이제는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하신다.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에 대한 근심보다 동료들과 함께 작업한 옷을 보는 기쁨이 더 커서 일과 치료를 병행하고 계신다.

봉제작업장 근로자들은 일을 마치면 하루 동안 수고한 서로를 격려한다. 옷을 만드는 것은 혼자 해낼 수 없는 일임을 알기에 동료근로자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예손작업장의 아침은 기쁨으로 시작한다. 예손작업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술가의 손길이 모여 찬양하는 곳이다. 예손작업장에서 예손작가들이 그린 그림은 온세미로처럼 태초의 순수함을 닮았다. 예손작가들의 그림을 처음 보는 이들 중에는 간혹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투박해 보이는 터치, 파격적인 구도 등이 기성작가들의 그림에 익숙한 이들의 눈에는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예손의 표현 방식은 그림이다. 자연, 사물, 사람, 동물 등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말이 아닌 그림으로 표현한다. 장애로 생각과 말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림이라는 달란트로 세상을 그리고 소통하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장애인이 아니라 작가이다. 그들의 작품을 보는 이들은 작가가 누구인지 소개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작품을 보고 감탄한다. 장애인이 그린 그림이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에는 자신이 가졌던 편견을 알게 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예손을 섬기는 봉사자들에게서도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매년 예손 친구들이 만든 달력을 아낌없이 구매해 주시는 손길, 여름마다 봉사자들과 함께 3일 동안 ‘예손 여름성경학교’를 섬겨주는 손길, 매주 예배 시간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손길, 예손의 작품 활동 멘토로 섬겨주는 손길, 예손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해주시는 손길, 예손의 그림을 외부에 전시할 수 있도록 장소와 재정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후원하는 손길이 모여서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전해진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변동코이노니아에 소속된 직원들과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해가고 있다. 변동코이노니아 구성원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늘 깊은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문의: 02-985-3609

권사칼럼

은퇴를 은퇴하라



박인숙 권사
(온누리 전도학교)

최근 UN이 평생연령 기준을 재정립했다. 0세~17세 ‘미성년자’, 18세~65세 ‘청년’, 66세~79세 ‘중년’, 80세~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다. 은퇴 이후 또 한 번

생애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생이 길어졌다. 이제 은퇴자(retire)는 노인이 아니라 ‘타이어를 바퀴 끼고 다시 한 번 생의 불꽃을 피워야 할 청년(Refire)’이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은퇴 이후 보내야 할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35만 시간(40년×24시간×365일)이다. 은퇴자들은 직업을 둘러싼 사회생활 의무에서 벗어나 35만 시간을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은퇴를 준비할 때 ‘내가 뭘 하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성과나 생산성 위주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을 살피는 성찰 위주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찰 위주의 삶은 존재(Being)를 결정하고 행동(Doing)을 하는 것이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속도와 성취 위주의 삶을 살았다면 후반전에는 방향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 크리스천은 은퇴를 은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쳐 지나가는 곳일 뿐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다. 우리는 100세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은퇴를 은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열심히 공만 쫓는 사람은 축구를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수는 공이 오는 방향을 보고 달린다. 인생의 고수가

되려면 은퇴 후 35만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은퇴관이 확실해야 한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후대에 기억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가치관을 정립하고 목표와 미션을 설계해야 한다.

해마다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 오지로 해외봉사를 떠나는 집사님 부부가 있다. 그들은 안경검안 기술을 배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은퇴 이후 선교지로 나갈 꿈을 품고 평소에도 전도훈련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용기술을 익히거나 악기와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이 있다. 그들은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설렘과 기대감으로 산다. 그들의 눈빛은 항상 반짝 반짝 빛이 난다. 이처럼 은퇴를 은퇴하면 삶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영화 ‘인턴’은 은퇴 이후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보여준다. 현업에서 은퇴한 70세 노인이 다시 인턴이 되어 30세 외로운 워킹맘 CEO를 지혜와 애정으로 섬긴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에서 시니어 인턴이 손녀뻘 되는 CEO에게 했던 대사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뮤지션은 은퇴를 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음악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한다고요. 내 마음 속에는 아직 음악이 있어요.”

이 대사를 듣는 순간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라는 고백이 나왔다. 내 안에 전도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다시 꿈을 거렸다. 전도자에게는 은퇴가 없다. 이 땅에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나는 계속해서 전할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할 곳이 많다. 모두들 은퇴를 은퇴하기를 바란다.

기고



박기화 집사
(서초B공동체)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이하 사랑챔버)는 1999년 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음악교실’로 시작했다. 18년이 지난 지금은 단원 60명, 지도교사 50명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

니는 부모님들도 빼놓을 수 없다. 장애인 단원들과 그 부모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연습하고,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다.

오는 10월 10일 예술의전당에서 사랑챔버 희망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함께 합창하고 수화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대가 더욱 크다.

지난 18년 동안 사랑챔버의 활약은 정말로 눈부셨다. 2000년 교회에서 연주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관, 소년원, 병원, 대학교, 여러 단체 모임, 학술회 등에 초청을 받았다. KBS, EBS, MBC 등 지상과 방송에서 사랑챔버 이야기가 방영됐고, 미국과 홍콩, 괌, 일본, 유럽 등지로 연주를 나가고 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산홍, 예술의 전당, IBK홀 등 전문음악인들이 연주하는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초청을 받아 연주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을 사랑과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사랑과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은 지휘자 손인경 집사(바이올리니스트)의 헌신이다. 손 집사님은 미국 예일대학에서 동양인 최초로 음악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이다. 누구보다 화려한 음악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장애인들에게 악기를 지도해주는 것이 자신의 재능을 하

사랑챔버 희망 콘서트

나눔께 쓰임 받는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챔버를 섬기고 있다. 손 집사님 외에도 눈물과 기도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다. 지도교사로 섬기고 있는 음악가 선생님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사랑챔버는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챔버가 무대에서 희망을 전하는 꽃이 될 수 있었다.

사랑챔버는 재능은 있으나 그 재능을 키울 기회조차 갖기 어려워 절망했던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꿈을 선물했다. 사랑챔버 단원들은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결실로 지금은 무대를 즐기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사랑챔버 단원들의 기쁨은 곧 가족들의 기쁨이다. 사랑챔버는 절망이라는 어둠이 소망이라는 빛으로 변화되는 곳이다. 사랑챔버에서 단원들은 생명을 얻고 있다.

사랑챔버 단원들은 희망을 전하는 빛의 연주자들이 되었다. 연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더욱 견고한 선교공동체가 될 것이다.

최근 특수학교 건립 반대한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18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장애인에 대한 시선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을 없애는 데 사랑챔버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과 희망을 전하는 사랑챔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챔버 희망 콘서트
일시: 10월 10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판매: 10월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
문의: 02-581-5404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거룩한 제사장

그러므로 새 생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서지지 않는 돌처럼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성도들의 신앙고백과 그들의 관계는 단단해서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게바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반석,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이 페트라에서 ‘베드로(페트로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돌입니다. 장차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초석이 되어서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반석과 같은 고백, 암반과 같이 견고한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떠한 압력과 핍박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신앙고백이 이렇게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암반과 같이 견고해서 깨지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는 관계는 세상의 어떤 압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돌과 같이 단단하고 생명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나라로서 자라는 여정

셋째, 한 나라로 자라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9~10절).

거듭난 생명들로 구성되는 성도들은 한 집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한 나라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동일한 혈통과 민족주의에 기초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아 형성된 영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국가는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나쁜 이기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잘 했다고 하지 잘못된 이기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윤리로 볼 때는 건강한 이기주의입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국민들에게 “이웃나라를 위해 우리가 희생합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양보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얻은 영혼들로 구성된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구별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면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무력과 권력으로 통치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부르심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섬기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부르

심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적대하고, 핍박하고, 환영하지 않고, 무너뜨리려는 세상을 향하여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양심의 행실을 통해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부르심입니다.

한 생명, 한 집, 한 나라로 자라는 공통점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경험한 순간부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순간 우리는 빛진 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며 구경하고 싶은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제사장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택함을 받은 민족,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잠을 잘 때나 모든 순간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공동체로 부르시고,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보내셨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전문가 기고

한 번 빛을 졌다고 인생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은정 법무사
(사회선교부 사회책임
팀, 미래로법무사사무
소 대표)

빛을 지면 실패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의 여러 MBA(경영학)에서 ‘실패’가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실리 콘 벨리 취업시장에서는 실패경험이 중요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사회에서도 실패는 투자의 실패일 뿐 개인의 실패는 아니라고 여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 번 실패를 하면 빛더미에 앉게 되며 ‘인생의 패배자’ 혹은 ‘부도덕한 자’로 낙인 찍혀 버리는 경우도 많다. 빛은 화려하게 재기해서 성공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약점이 되어 버린다.

한 경찰공무원 A의 실제 사례이다. A는 형의 사업에 보증을 서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역대

의 빛을 지고 있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채무

돌려막기를 하었는데 추심원이 경찰서로 찾아올까봐 빛을 연체시키지 못하였다. 그동안 자살시도를 두번이나 했고, 그 충격으로 딸까지 자살시도를 세번이나 했다. 연체가 있지 않아도 파산이나 회생이 가능하다는 사소한 법지식이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또 한 아주머니 B는 10년 전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서 같이 고통 받고 있었다. 아서 파산신청을 하고 남편도 개인회생을 하라고 권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수년 뒤 전화기 넘어 하염없이 우는 아주머니는 가족들이 모두 주일예배를 간 동안 우울증을 앓던 남편이 집에서 자살을 했다고 했다. 그동안 왜 수년을 방치했냐고 물었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다. 10년 전에 필자가 채무조정을 강요하다시피 진행하였으면 어땠을까?

채무로 상담하는 분들은 파산은 단어가 기분

나쁘니 다른 선택을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한다. 그러나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같이 한다. 파산이란 통념상 말하는 부도가 났다는 법률용어일 뿐이니 용어에 대한 선입

견때문에 신청을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 파산이나 회생을 하여도 가족과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고 파산이나 회생 신청 이후 통장 사용과 사업자등록도 바로 가능하다. 파산면책이나 회생인용 기록은 신용조회 기록상 5년밖에 남지 않아 그 이후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평균 90~95%이상이다.

20~30분 정도의 상담이 끝나면 평균 1년에서 4년 동안 채무 돌려막기를 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진작 상담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경제적 재기 방법은 법원의 파산, 회생뿐만이 아니다. 워크아웃 등 유익한 제도가 많다.

기독교인도 빛을 지고 실패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중의 고통을 느끼는 것 같다. 빛을 본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앞으로의 일만 고민하면 되는 비기독교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실패의 해석’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막지 않으셨고, 원망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셨는지 알 수 없다

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하소연이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빛지는 일 자체를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으신다. 하지만 이미 구약 시대부터 빛은 6년 이후에는 탕감하라고 하셨다(신명기 15장 1, 2절). 이미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채무조정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으니 죄책감이나 위축감으로 혼자서만 고통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겸손해진다.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다. 나아가 실패한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듯이 신용등급(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니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저 천국에 두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순례의 걸음을 힘차게 함께 걷자.

부채탈출 119
대상: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문의: 02-3215-3434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페르시아어예배 13:30 본관5층 미션다락방

인연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 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승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 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 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신관 4층 누리를

양재: 본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공동체 비전센터(일산호수병원 4층)

온누리가족 나무동선(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20기 치유사역자스쿨 모집

기간: 10월 12일~12월 14일 매 주(목) 오후

7시 20분~10시

신청: 아이스쿨 홈페이지

문의: 010-7388-9900

46기 젊은부부학교

일정: 10월 21일~11월 11일(매 주 토요일,

2주차는 1박2일)

자격: 결혼기간 12년차 이하(초과하신 분

은 별도 상담 요람)

비용: 가정당 30만원

접수: 10월 20일 까지 선착순 40가정

문의: 김은수 총무(010-8756-7379)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17기 모집

일시: 10월 14일~11월 5일까지(총 4주, 매

주 1박 2일)

접수: 10월 8일까지(선착순 24가정)

비용: 부부 당 300,000원(자녀 동반시 1인

당 50,000원 별도)

문의: 김상범 총무(010-5471-0854)

*금번 117기 하가훈은 서빙고, 양재, 수원,

부천 캠퍼스 연합으로 진행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 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 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 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 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 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살롱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 주 월 19:30 양재 JDS홀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다큐멘터리, TV드라마 등 한국교회와 나눌
복음 콘텐츠 제작을 이어갑니다

통일다큐 <독일 통일, 기도에서 기적으로>

1989년, 기적처럼 시작된 독일의 통일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을 품은 독일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평화통일의 길을 발견해봅니다.

10월 방송



>>



다큐 <서서평과 서서평들>

영화 속 서평을 연기한 안나와 함께 광주와 독일을 찾아
서서평 선교사의 흔적을 따라갑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의 가치와 삶을 살아내는 ‘서서평들’,
서서평 그 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 보십시오.

<<

11월 방송



CGNTV 첫 TV드라마 <다시, 봄>

어린 시절, 목사였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주인공 보라. 19년 만에 다시 찾아간 교회에서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영혼을 따뜻한
봄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2월 방송



>>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콘텐츠로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